

“미국산 육류 공습 돼지고기값 30% 하락”

10년내 관세철폐로 13% ↓...쇠고기 수입 15% ↓ 양돈 농가 타격...삼겹살 시장도 빠르게 잠식할 듯

농업연구기관 GSnJ 보고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돼지고기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국내 돼지고기 값이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산 냉장 삼겹살은 한미FTA를 통해 업고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해나갈 전망이다.

◇갈비까지 수입되면 더 하락=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23일 발표한 '한미FTA 해부 : 돼지고기' 보고서에서 이정환 GSnJ 이사장과 김민경 연구위원(건국대 교수), 김재훈 연구원 등은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세, 수입물량과 국내 돼지고기 가격

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같은 관측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고는 15%, 한미FTA에 따른 돼지고기 관세철폐는 12~13%, 쇠고기 관세감축은 2%씩 각각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만간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 결정되고, 한미FTA가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까지 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값이 현재의 30%, 3분의 1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로 연간 총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 즉 2006년보다 52% 많은 32만까지 늘어날 경우 수입쇠고기와 대체관계인 국내 돼지고기값은 1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엔 관세 완전철폐=나머지 15%의 하락요인은 한미FTA의 관세 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25%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는 오는 2014년까지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 냉동 돼지고기 수입원가도 작년 2천250원(1kg)에서 2014년에는 1천800원까지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냉장 돼지고기 역시 현행 22.5%인 관세가 발효시점부터 10년에 걸쳐 없어지므로 올해 기준을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된다면 관세가 사라지는 2017년 수입원가가 4천866원으로 2006년의 5천666원보다 18%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2014~2017년 미국산 냉동·냉장 돼지고기 수입원가가 18~20% 낮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는 4% 정도 줄고, 가격이 12~13%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2002~2006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10% 낮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6.6% 떨어지고 수요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하면 셰이프가드(ASG)가 발동돼 수입원가 하락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냉동육 비중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4%에 불과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을 억제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됐다.

◇美 삼겹살 시장 빠르게 잠식할 듯=한미FTA에 힘입어 미국산 돼지고기는 특히 냉장 삼겹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국산 냉장 삼겹살의 수입원가가 5천970원으로 캐나다(5천309원)나 칠레(4천936원)산보다 높은 상태에서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관세철폐로 수입원가가 4천781원까지 낮아지면 우선 캐나다산을 대체하고 국내산 시장도 잠식할 것이 예상된다. 작년 기준 국내산 냉장 삼겹살의 소매가격은 7천680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68%)을 차지하는 방통육 및 갈비수입 시장에서도 현재 점유율 1위(35%)인 미국산의 '독주체'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통신요금 내려라” 정부 칼 빼 들었다

“재판매 의무화 등 통신법 개정”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요금 인하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하반기 통신정책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 규제 도입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방통법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서비스 재판매란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 설비를 빌려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SK텔레콤이나 KT 등은 자신들의 망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 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허용한 결합상품의 통신료 인하 효과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잠금기능을 내년 3월부터 해제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1일 이체 한도 5천만원→3천만원, 인출 1천만원→6백만원 금융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축소

금융감독원, 전화 금융사기 예방책...9월부터 시행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며 3개월 이상 체류 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8월말까지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이

체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일 인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자동화기기가 1차 대상”이라며 “이용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고객이 필

요하면 거래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기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개설이 금지된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영업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분양권 사도 주택조합 가입 못한다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1일부터는 주택 분양권을 산 사람도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실수요자 위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법과 청약당첨자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자격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에 따라 청약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직장조합주

택의 경우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데 청약에 참가해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라 9월1일부터는 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건설예정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주가 2,000P 초읽기

코스피 9.51P 상승 1993.05 마감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며 2,000 시대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9.51포인트(0.48%) 오른 1,993.05로 마감, 이제 2,000 시대 개막까지는 불과 6.95포인트(0.35%)만을 남겨두게 됐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여파로 6.54포인트(0.79%) 떨어진 818.79로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986조4천300억원)과 코스닥시장(107조1천400억원)을 합한 시가총액은 1천93조5천7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주식시장의 거침 없는 강세에 힘입어 이날 유가증권시장(120개)과 코스닥시장(55개)에서 총 175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3일 이후 6거래일 동안 2조1천억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83.30포인트(4.36%)나 올랐다.

한 전문가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지수가 금명간 2,000선을 넘어설 것이다”면서도 “미국 모기지 부실, 중국의 긴축 등 악재도 쟁겨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r

삼성전자 LCD 모니터 '컬렉션'

디자인 공모전 'IDEA 2007' 금상

삼성전자는 권위있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DEA(Industri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07'에서 LCD 모니터 '컬렉션'(SyncMaster 971P)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IDEA 2007은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와 비즈니스워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금상을 수상한 '컬렉션'은 기하학적 모양의 삼중 접이식 스탠드 디자인을 통해 기존 모니터의 딱딱하고 단조로운 형식을 탈피한 예술적이고 세련된 제품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자기에 그리는 그림교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3일 서울 한국도자기 본사 전시장에서 열린 '도자기에 그리는 그림교실' 행사에 참석, 가족들과 함께 방학 계획을 도자기에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産銀 비정규직131명 정규직 전환

산업은행은 23일 공공기관·국책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 2년 이상인 비정규직 직원 13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앞으로 휴가와 휴직, 다른 복리후생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임금체계는 직무급 형태로 적용된다.

산업은행은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근무기간 2년 미만의 직원 48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무기간 등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로공사 신임 사장 권도엽씨 내정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권도엽 전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내정됐다.

2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권도엽씨를 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임명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권도엽 전 실장은 건교부 주택국장과 정책실장 등을 거쳐 정부와 도로공사의 관계를 무리 없이 이끌 수 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처분조건부 아파트 매물 하반기 집값 중대 변수

대환대출 금지로 매물 쏟아질 듯

정부가 지난 22일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상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선에 따라 이들 매물이 올 가을 주택시장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들 매물은 특히 지난 4~5월 종합부동산세 회피 급매물 보다 더 많아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주택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11월의 경우 집값급등에 따라 서둘러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처분조건부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1년 뒤인 올 가을에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9월 1만7천106건, 10월 2만3천641건, 11월 2만8천767건으로 봄 이사철인 지난해 3~5월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3월말 현재 남아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 7만여건 가운데 연내 집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4만6천여건으로 이론상 이 정도 수량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업주가 웨이터에 준 나이트클럽 봉사료 매출액 해당...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

한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이 받은 봉사료가 세법상 봉사료가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웨이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숙박 영역이나 개인서비스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웨이터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 지급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웨이터별로 테이블을 배정받아 해당 테이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봉사료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 T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7/24	062-360-5201
롯데리아광주상무점	롯데리아 매니저 및 아르바이트	초대졸/경력무관	1300~1500	07/25	019-660-0750
광성유리공업	총무사무원, 생산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27	062-942-2285
서울신용평가정보(주)광주지점	전입세대열람, 임대차현장조사 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7	062-232-5000
(주)에이나라	네트워크, 서버관리 사원	초대졸/경력2년	1200~1400	07/28	062-224-6073
에이에스엘 퍼시픽 케이오엘	전반적 총무 및 자재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9	062-973-4174
광우메디스	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9	062-267-9222
(주)컴이조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교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30	062-233-0063
윈테크	자동차 기계설계 엔지니어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7/30	062-961-9320
해양수산	건어물 유통/배송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71-8980
인타세이브	고객응대, 엑셀, 파워포인트, OA능력, 개인관리직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7/31	010-4640-5262
D.I OUTDOOR (동일물산(주))	쇼핑몰 웹디자인/상품편집/판매 및 기타업무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7/31	062-954-3585
동양생명(주)본사	(TM1)위고객상담원(남여 200명(주5일))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7/31	02-518-2769
(주)신진캐미칼	하반기 정규사원 추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43-811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